

일자리를 튼튼하게 일터를 안전하게 노동3권 온전하게 노조할권리 모두에게



조선소, 철강도
해외로 물량 많이
빠간다던데

완성차고
부품이고
공장 죄다
미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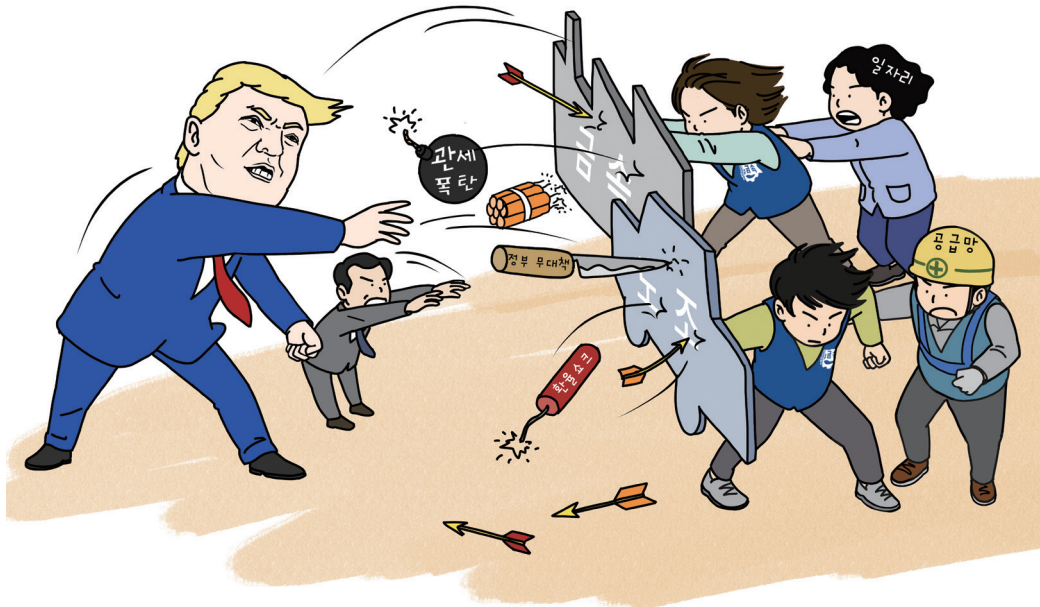
미국발 관세 폭탄, 해외 물량 이전, 환율 폭등...
자동차, 조선소, 철강, 반도체 모두 걱정입니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가 미국 고용 늘리려
한국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트럼프의 못된 심보,
군말 없이 받아주는 자본들 정말 큰 일입니다.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냐?

국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금속노조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조합원들 일자리 지키는 것보다
금속노조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 후보와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 국내 일자리 · 공급망 보호를 위한 노정 교섭
- 국내 일자리의 양적 · 질적 발전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 미국 퍼주기식 외교 · 통상 정책 폐기



그들은 여전히 큰소리치며 민주주의를 희롱합니다.
내란의 겨울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투쟁으로 국회가 23년, 24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2차례 모두 거부! 기억하시죠?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노동의 봄은 그때부터!

내란잔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반민주 세력·재벌 대기업에 빌붙어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해 온 권력기관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노동자 목소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하고 투쟁하는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 작업중지권 ▲ 기후위기 대응 ▲ 금속산업최저임금 등을 다룹니다.

또 금속노조는

▲ 노동법 전면 개정 ▲ 노조 회계 공시 등 반노동 정책 폐기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등을 내걸고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만 통일 요구	온전한 작업중지권으로 산재 예방	• 모든 사업장 노동자·노동조합 작업중지권 보장 • 안전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 노동자 작업중지·거부에 대한 불이익 금지
중앙교섭 요구	기후 위기 대응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체계 구축·실행 • 사업장 밖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협의 정례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210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두의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금속노조 간부라면 6월 11일 국회로!

2025년 금속노조 앞에 많은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6월 11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
새 정부와 국회에 금속노동자 요구를 제대로 전달합니다.